

50m 드리블... 50호 슈퍼골

〈토트넘 통산〉

손흥민, 2주 휴식 후 첼시전 선발 리그 1호... 토트넘 3-1 승리 견인

드디어 터졌다. 충분한 휴식을 취한 토트넘의 손흥민이 환상적인 리그 첫 골을 터뜨렸다.

손흥민은 25일 영국 런던 웬블리 스타디움에서 열린 2018-2019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 13라운드 첼시와 홈 경기에서 선발 출전해 2-0으로 앞선 후반 9분 통쾌한 득점을 기록했다.

시원한 골이었다. 손흥민은 역습 기회에서 델리 알리의 스루패스를 하프라인 부근 오른쪽 측면에서 잡은 뒤 폭발적인 스피드로 질주했다.

그는 상대 팀 수비수들을 직접 제진 뒤 페널티지역으로 침투했고, 정확한 왼발 슈팅으로 골망을 갈랐다. 약 50m를 홀로 질주해 만든 '슈퍼골'이었다.

득점 장면만큼 이날 골에 담긴 의미도 남다르다.

그는 지난 1일 리그컵 웨스트햄전 이후 24일 만에 시즌 3호 골이자 올 시즌 프리미어리그 마스결이 득점을 기록했다. 아울러 유럽 1부리그 클럽에서 99번째 골을 작렬했다.

손흥민은 독일 분데스리가 함부르크(20골)와 레버쿠젠(29골)에서 총 49골을 넣었고(함부르크 2군 제외),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토트넘에서 50번째 골을 채웠다.

손흥민은 올 시즌을 앞두고 2018 러시아월드컵,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 등 많은 국제대회에 출전했다. 시즌 개막 후에도 많은 경기에 나서 흑사논란이 일었다.

그러나 최근 A매치에 차출되지 않고 약 2주가량 충분한 휴식을 취하며 컨디션을 끌어올렸고, 이날 경기에서 폭발적인 경기력으로 첫 골을 뽑았다.

손흥민의 움직임은 이전 경기와 확연히 달랐다. 그는 4-3-3 전술에서 왼쪽 측면 최전방 공격수로 선발 출전해 전반전부터 맹활약을 펼쳤다.

1-0으로 앞선 전반 10분 페널티 지역 왼쪽에서 팀 동료 크리스티안 에릭센과 공을 주고받으며 상대 수비라인을 무너뜨린 뒤 오른쪽 슈팅을 시도했는데, 골대 위로 살짝 넘어갔다.

전반 13분 알리의 스루패스를 받은 뒤 빠른 템포로 상대 팀 수비수 안토니오 루디거를 제치는 모습도 인상적이었다. 그는 이어 골문 앞에서 골키퍼와 일대일 기회를 잡았는데 아쉽게도 슈팅이 골키퍼 선방에 막혔다.

2-0으로 앞선 전반 31분엔 알리의 후방 패스를 잡은 뒤 상대 수비수 3명을 앞에 두고 슈팅을 시도하기도 했다. 이 역시 골대 왼쪽으로 살짝 벗어났다.

손흥민은 3-0으로 앞선 후반 33분 에릭 라멜라와 교체돼 물러났다.

한편 토트넘은 전반 8분 알리, 전반 16분 케인의 골로 전반을 2-0으로 마친 뒤 손흥민의 쐐기 골로



“봤지?” 손흥민(토트넘)이 24일(현지시간) 열린 2018-2019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 13라운드 첼시와의 홈 경기에서 선발 출전, 후반 9분 상대 팀 수비를 뚫고 약 50m를 질주해 토트넘 통산 50호 골이자 자신의 올 시즌 프리미어리그 첫 골을 성공시킨 뒤 기뻐하고 있다. /연합뉴스

일찌감치 승기를 잡았다. 후반 40분 상대 팀 올리비에 지루에게 추격 골을 내줘 3-1로 경기를 마쳤다. 토트넘은 첼시를 끌어내리고 리그 3위 자리에 올

라섰다. 첼시는 올 시즌 13경기 만에 첫 패배의 쓴 맛을 봤다. 손흥민은 구단 미디어와 인터뷰에서 “매우 중요

한 경기였는데, 강팀 첼시를 상대로 골을 넣어 기쁘다. 그러나 한편으로 미안한 감정이 있다”며 “오랜 기간 제대로 된 경기력을 보여드리지 못했다. 힘든

건 아니었지만, 많은 생각을 했던 시기다. 변함없이 응원해준 팬들 덕분에 좋은 경기력을 펼친 것 같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황인준 “내년엔 수 싸움 자신 있어요”



올 시즌 37경기 52.2이닝 소화 선발·볼펜 빈틈 채우며 활약 밸런스 잡기 주력... 변화구 보완

잊지 못할 2018시즌을 보낸 KIA 타이거즈의 투수 황인준이 마무리캠프에서 비장의 무기를 더하고 있다.

황인준은 지난 5월 5일 NC와의 경기에서 구원 등판하면서 입단 4년 만에 1군 데뷔전을 치렀다. 큰 기대를 하지 않았던 등장이었지만 이후 황인준은 KIA가 올 시즌을 마무리할 때까지 1군 자리를 지켰다.

헤터의 갑작스러운 이탈 증세로 6월 12일 SK와의 홈경기에서는 '갑작 선발'로 등장하는 등 두 차례 선발로도 마운드에 섰다.

황인준의 첫 시즌 성적은 평균자책점 4.96, 3승 1패 1홀드. 37경기에서 나와 52.2이닝을 소화하면서 볼펜의 소금 역할을 톡톡히 했다.

꿈에 그리던 1군 무대에서 많은 경험을 했지만, 만족스러운 시즌은 아니었다. “아직 멀었다”가 한 시즌을 달린 황인준의 소감이다.

황인준은 “첫 시즌치고는 잘했다고 생각하는데 아직 멀었다.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시작했으니까 준비하고 대처하고 이런 게 하나도 안됐던 것 같다”며 “이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어쩔 줄 모르다가 한두 달 지나 보니까 보이는 것도 있었다”고 자신의 첫 시즌을 이야기했다.

아쉬움이 먼저 보이지만 황인준에게는 잊지 못할, 의미 있는 시즌이다.

황인준은 “1군에서 많은 경기를 나갔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그리고 잘 치는 타자들을 상대해봤다는 게 크다. TV에서만 보던 타자를 상대 해봤다”고 웃었다.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은 롯데의 중심타자 이대호와의 맞대결이었다.

황인준은 “8회 2사에서 선발이었던 헛터가 홈런을 맞고 교체돼서 등판했다. 올라가서 이대호를 삼진으로 잡았는데 그게 가장 기억에 남는다. 그런데 이겼어야 하는 경기였는데 이기지는 못한 게 아쉽기는 했다”며 KBO리그를 대표하는 타자와의 승부를 떠올렸다.

일본 오키나와 마무리캠프에 참가한 황인준은 밸런스에 가장 많이 신경을 쓰고 있다. 그리고 상대와의 수 싸움을 더욱 복잡하기 위해 새로운 변화구도 더하고 있다.

황인준은 “캠프에서 많은 것을 신경 쓰고 있는데 특히 밸런스에 집중하고 있다. 시즌 중에도 팔이 벌어지는 게 많아서 줄이려고 했었는데, 한번 바꾸려고 하다 보니까 볼이 잘 안 갔다. 그래서 시즌 중에는 하던 대로 하고 시즌 끝난 뒤에 이 부분을 잡자고 생각했었다”고 말했다.

또 “변화구 연습도 하고 있다. (주무기인) 슬라이더 더 보완도 하고, 추가도 하고 있다. 여러 시도를 하



고 있다. 커브와 포크볼 등을 연습하는데 포크볼이 다른 구종에 비해 빨리 적응되는 것 같다”며 “올 시즌 한번 경험해봤으니까 내년 시즌 준비는 다를 것 같다. 한번 해보고 하는 것과 아닌 것과는 다르다. 준비 잘해서 내년 시즌에 더 좋은 모습 보일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김여울 기자 wool@

김진우 호주리그 데뷔전 1.2이닝 6실점

새로운 도전에 나선 오른손 투수 김진우(35)가 호주프로야구리그(ABL) 데뷔전에서 1.2이닝 6실점으로 무너지고 퇴장까지 당한 뒤 패전 망을 썼다.

구대성 감독이 이끄는 질롱 코리아는 24일 호주 질롱 베이스볼센터에서 열린 2018-2019 ABL 2라운드 3차전 홈 경기에서 퍼스 히트에 2-15 대패를 당했다.

김진우는 질롱 코리아의 에이스 역할을 맡을 것으로 기대를 모았으나, 이날 데뷔전에서 1.2이

닝 7피안타 2볼넷 2탈삼진 6실점(5자책)으로 부진했다.

이 경기에서 김진우는 구 감독과 함께 퇴장까지 당했다.

2회초 2사 만루에서 퍼스의 크리스 베츠가 싹쓸이 안타를 친 뒤 베이스를 돌 때 2루에서 유격수 박휘연을 향해 거칠게 슬라이딩을 했다. 쓰러진 박휘연은 송구 실책을 했고, 대량실점으로 이어지자 구 감독은 거칠게 항의하다가 퇴장당했다. 이어 김진우도 퇴장당했다. /연합뉴스

광주시장배 초등야구 수창·송정동초 공동우승

2018 광주광역시장배 초등야구 대회에서 수창초·송정동초가 공동 우승을 차지했다. 중등부에서는 동성중이 정상에 올랐다.

올해 처음 열린 시장배 초등대회는 지난 20일부터 24일까지 무등경기장에서 열렸으며, 광주 지역 초등학교 7개 팀이 참가했다.

A조에서는 서석초, 학강초, 서림초, 대성초가 대결을 벌였고, B조에서는 수창초, 송정동초, 화정초가 격돌했다.

B조 1·2위로 준결승에 진출한 수창초와 송정동초는 각각 학강초와 대성초를 꺾고 결승에 진출했다. 그러나 우천으로 대회 결승이 치러지지 못하면서 두 팀은 공동 우승팀이 됐다.

동성중은 22일부터 24일까지 이어진 시장배 중학교 야구대회 초대 우승팀이 됐다. 동성중은 무등중, 충장중, 진흥중 등 4개 팀이 맞붙은 이번 대회에서 2승 1패를 기록, 최소실점(14점)에서 무등중(17점)에 앞서 우승을 확정했다.

◇중등부 시상내역

▲최우수선수 : 박예찬(수창초) ▲우수선수상 : 이도훈(송정동초) ▲우수투수상 : 안동규(송정동초) ▲타격상 : 박준성(8타수 7안타 0.875·수창초) ▲최다도루상 : 김동혁(5개·서석초) ▲최다타점상 : 박준성(8타점·수창초) ▲감독상 : 최현규(수창초) ▲감독상 : 박태형(송정동초) ▲감독상 : 박태민(송정동초) ▲지도상 : 전경용(수창초 부장) 정현준(송정동초 부장)

◇중등부 시상내역

▲최우수선수상 : 하상욱(동성중) ▲우수선수상 : 구동규(동성중) ▲우수투수상 : 정연수(동성중) ▲타격상 : 김강준(4타수 4안타 1.000·동성중) ▲최다도루상 : 김미르(2개·무등중) ▲최다타점상 : 김유현(6타점·동성중) ▲감독상 : 배광률(무등중) ▲지도상 : 박민제(무등중) ▲감독상 : 강대성(동성중) ▲지도상 : 송치용(동성중 부장) /김여울 기자 wool@